

# 기초자료 제각각...5·18 행불자 관리 엉망

### 5·18묘지 묘비번호 받았지만 광주시 명단선 확인 안돼 市·묘지관리소 명단 달라...이름 잘못 새긴 묘비도 버젓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인 행방불명자(이하 행불자)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국가유공자로 확정돼 국립5·18민주묘지 묘비번호까지 부여받았지만, 광주시에는 묘비 주인의 명단이 빠져 있다. 또 행불자의 이름이 잘못 새겨진 묘비가 버젓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18단체 한 관계자는 “행불자도 5·18 희생자의 한 축”이라며 “명단·행적은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데 기관마다 행불자 명단이 다르니 어찌구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22일 광주시와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이하 5·18묘지관리소)에 따르면 시가 공식 인정한 5·18 희생 행불자는 총 75명이다. 이 중 가족의 요청으로 5·18묘지 행불자묘역(1~10묘역)에 묘비가 세워진 이는 67명이다. 나머지 7명은 행불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아직 묘비를 세우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광주시와 5·18묘지관리소가 가지고 있는 행불자 명단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행불자묘역에는 묘지가 세워져 있는데 광주시 자료에는 명단이 없는 것이다. 행불자 운영회씨는, 운씨는 묘지번호 ‘10-67번’으로 행불자묘역에 비석이 마련

돼 있다. 운씨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다. 그러나 광주일보가 확보한 광주시 행불자 자료에는 운씨의 명단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할 때 광주시에서 해당자에 대한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진행한다”며 “보훈처에 등록돼 있고 5·18묘지에 묘비가 마련돼 있는데 시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관계자는 “시 자료에도 운씨의 명단은 있다”며 “다른 직원이 잘못된 자료를 보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의 해명대로라면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내에서도 2개의 자료가 있다는 의미다. 행불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5·18묘지에는 행불자 이름이 잘못 새겨진 묘비도 있다. 묘지번호 ‘10-14번 김용호’씨 묘비다. 이는 ‘김용호’를 ‘김용호’로 잘못 새긴 것이다. 시가 비석을 제작해 5·18묘지 측에 전달하는데 비석에 새긴 이름을 틀리게 작성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로 선양하면서 이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5·18묘지관리소 관계자는 “광주시가



김용호로 잘못 새겨진 행불자 김용호씨 묘역.

실수로 비석에 행불자 이름을 잘못 새겨 가져왔다”며 “잘못이 확인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판결로 본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전말 지금난에 공사 중단되자 대표·직원 공모 분양계약서 위조 중복 계약 피해자 속출

### 대표 징역 14년 중형 선고

400억원대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범행은 오랜기간 지속됐다. 범행의 성공 요인은 피해자들의 지나친 욕심이었다. 법원 판결로 본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단순했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신축한 482가구 규모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박모(58)씨는 지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직원들과 공모해 중복분양을 계획했다.

먼저 분양계약서를 조작했다. 계약서의 신락사 계약기 기제돼 있는 ‘분양수입금계좌’를 삭제하고, ‘날인’에서도 시공사와 신락사 부분을 삭제했다. 이 허위계약서가 중복 분양의 시작이었다.

박씨는 피해자들을 감언이설로 꼬드겼다. 일실별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정상가(4억2559만원)보다 20% 싸게 공급(3억4000만원)하겠다고 했다. 20% 할인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1억원은 남기게 된다는 속임수였다. 안전판으로 준공된 곧바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허위계약서를 내밀었다.

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계약해지·미분양 물량을 532명에게 중복 분양해 363억8851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A씨는 무려 8채를 계약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추징금 2억23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스스로, 혹은 직원인 공범들에게 지시해 장기간에 걸쳐 약 6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사건으로 범행 기간과 수법·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경제질서가 교란되고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수많은 분쟁과 인적 관계의 파탄, 각종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해악 역시 매우 크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추정보존을 한 박씨의 재산이 일부 있지만 300억원이 넘는 피해금액 중 몇 억원에 불과하다”며 “형사적으로는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기 위해 개개인이 또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5·18...37년전 오늘 어떤 일이

#### 상무관엔 무명천 덮인 시신 가득 ‘통곡의 광주’

광주 외곽지역에서는 밤새도록 간헐적으로 총성이 들려왔다. 계엄군은 외곽을 완전히 포위한 채 밤새 봉쇄작전을 펼쳤다.

5월23일 아침 광주시내는 여전히 해방감과 승리감으로 고조된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길거리를 청소했다. 시장 주변 길가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길가에 술을 걸고 밥을 지었다. 밤 새워 경계근무를 한 시민군들의 아침식사가였다. 상가들도 띄엄띄엄 문을 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경 도청 앞 광장은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찼다. 족히 5만은 넘을 인파였다.

전남도청 맞은편 상무관에는 시신들이 무명천에 덮여 누워져 있었다. 아직 입관하지 못한 시신도 수십구였으며, 무명천 위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영령을 모시는 분향대가 입구에 설치돼 향이 피워졌고,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가 뿌려졌다. 분



향하려는 시민들이 늘어선 줄은 상무관 바깥 분수대까지 광장을 가로질러 길게 구불구불 이어졌다.

확대수습위원회는 계엄사에 요구할 8개 조건을 확정했다. ▲계엄군·공수부대의 지나친 과잉진압을 인정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계엄군의 시가지 투입을 금지하라 ▲시민·학생 처벌 및 보복 엄금하라 ▲정부 책임하에 사망자·부상자의 피해 보상하라 ▲방송 재개 및 사실 보도를 촉구하라 ▲자극적인 어휘 사용을 금지하라 ▲시외 통로를 열라 등으로 지극히 당연한 요구들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

## 6월, 민주주의 꽃이 핍니다

### 6월항쟁 시발지 광주서 30주년 기념 행사 다채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앞두고 전국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가 열린다. 6월 민주항쟁의 포문을 열었던 광주에서도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이 개최된다.

6월 민주항쟁 30년 광주전남행사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식’은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여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국민대행진’을 재연, 광주역부터 금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참가하는 국민대행진은 당시 행진의 재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시민들은 직접 열사들의 영정을 들고 금남로로 향할 전망이다. 또한, 광주전남행사위원회는 1987명의 시·도민 추진위원을 모집, 모집된 추진위원들이 직접 작성한 6·

10 항쟁 시국선언문을 기념식 당일 낭독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은 경과보고, 축사, 선언문 낭독 및 채택 순으로 진행되며 끝으로 7~10일이 참여하는 시민합창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올해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6월, 민주주의 꽃이 피다’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기념사업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업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항쟁 30주년 기념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사업회는 ‘30’에서 숫자 0을 역동적으로 활짝 피어나는 꽃으로 형상화한 6월항쟁 30주년 사업 EI(Event Identity)를 공개했다. 꽃은 6월항쟁으로 피어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했다. 사업회는 올해 기념행사, 학술·토론·조사, 협력·연대사업 등 크게 세 가지 틀 안에서 총 19개 사업을 벌인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시내버스 앞질러 급제동 ‘난폭 마을버스’

광주광산경찰청은 22일 시내버스가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앞지르고 갔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상대로 난폭·보복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마을버스기사 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 서구 우산동의 광산중학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마을버스로 시내버스를 추월한 뒤 650m 가

랑 1차선과 2차선을 오가며 저속운행과 급제동을 반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신창중학교부터 영광동 사거리까지 코스가 같은 시내버스가 광산구 운남동 목련교차로에서 마을버스를 앞질러 가자 시내버스가 자신의 손님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버스승객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형호기자 khh@

## 아파트 단지 소 출현 ‘소동’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난데없는 소가 출현해 아파트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한바탕 소동.

○...22일 광주북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소 한 마리가 나타나 주차장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바람에 차에 타려던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고 노약자·어린이 등 일부 입주주민들은 주차장 출입이 잠시 통제되기도.

○...이날 소는 아파트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도축장에 도착해 트럭에서 내리던 중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소방



북부소방서 제공

관계자는 “소가 놀라서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소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다른 곳으로 멀리 가지 않도록 동선을 유도했다”며 “신고 받은 지역 30여 분 만에 마취총을 쏘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01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